한 지붕 세 팀

(눅8:40-56)

49.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1.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2.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한 지붕 세 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7년 동안 방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던 초기에 이 드라마가 방영될 때, 제가 바로 한 지붕 세 가족을 그대로 실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20평 남짓한 그야말로 그 당시 20년이 넘었던 낡은 연립주택에서 방을 하나 얻어서 집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때 안방은 네 식구, 주인 가족이 살았고, 부엌 옆에 있는 부엌방은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아가씨가 혼자 살고 있었고, 그 집에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나머지 방 하나를 차지하

고 살았습니다.
부엌 하나로 세 가정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지붕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세 명으로 이루어진 한 지붕 밑의 한 가족이 한 지붕 밑의 세 팀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세 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족이 세 팀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변화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반드시 모든 가정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부부만 살고 있는 가정이라면 한 지붕 밑의 한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지붕 밑의 두 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 여덟 식구가 살고 있다면 한 지붕 밑에 여덟 명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한 지붕 밑에 여덟 개 팀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기적 가운데 열두 해 혈루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열두 해를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가 하나로 얽혀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 오시기 전까지 거라사 지방에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 땅 거라사에서 귀신들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천 마리의 돼지 떼를 몰살시켰습니다.
그 돼지 떼를 몰살시킨 것은 군대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이천 마리 돼지 떼에게서 재정적인 안정감을 얻으면서, 다시 말해 2000마리 돼지가 삶의 안정된 기반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하시려고 2000마리의 돼지 떼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안정된 삶을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위한 기반으로 재정적인 기반을 첫째로 삼고 있어요.

그 재정적인 기반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나이 들어서 남편이 죽는 것 걱정 안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정적인 기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2000마리의 돼지 떼를 없애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안심하며 사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안정감을 얻는 기반이 무엇이냐가 문제인 거죠.
이 땅 위에서 잘돼가는 사업 때문에 안정감을 얻는 것, 이것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2000마리 돼지 떼를 몰살시키시고 대신에 당신 자신을 허락하십니다.
"나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살아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지방을 떠나시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무엇에서 안정감을 찾느냐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그러면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안심합니까?
돈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음에서 붙잡아지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기반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기반이 하나 있는 걸 거론하십니다.
그게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가족 간의 결속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그 결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야이로의 집을 선택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다산이 자랑이던 그런 시대에 왜 하필 딸만 하나를 낳았을까? 문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낳고 사는 것에 아무런 저항을 갖지 않던 그 시대에 딸 하나만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이 가정의 엄마 아빠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일곱 여덟의 자식을 둔 집안보다 더 강렬하게 이 외동딸에게 사랑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식구 서로서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야이로와 엄마, 그리고 외동딸의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속이고, 이 세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 탄탄하게 결속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감의 토대를 그들이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닥칩니다.
열두 살 된 딸이 가장 아름다울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왔으나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이제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수없이 결속되어 있던,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생의 삶의 안정감을 위한 기반이 되었던 이 결속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딸이 죽으면서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이로와 그의 아내, 둘 간의 결속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내가 딸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남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아내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딸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딸이 죽어버리면서 결속이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단단한 결속이 깨진 틈바구니를 끼어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딸을 살려내셔서 그 부부에게 다시 줄 때에 다시 살아난 딸도, 죽어가는 딸을 보고 있던 남편도 아내도, 모두의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이제 서로서로를 보고 있던 결속이 깨어지면서 세 사람이 각자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게 되면서 각 사람이 예수님과 한 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뭉쳐서 한 가족이었던 가정이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세 명 모두가 다 각각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한 지붕 밑의 세 팀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열두 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각각 한 팀을 이룬다고 하는 내용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유대사회의 규정과 규례와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게 되고, 부정한 여인은 어떤 사람과도 접촉을 할 수 없고, 부정한 여인이 쓰는 모든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같이 부정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유대사회에서 이 여인은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열두 해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 접촉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죽어버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운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팀을 이룰 때의 내부구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관계가 되는 형태로 예수님과 내가 팀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 모습으로, 야이로의 가정이 각자가 예수님과 한 팀을 이루면서 한 지붕 밑의 세 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이 콩가루 집안처럼 예수님과는 한 팀이지만 각자가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될 때에 가정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면서 8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 중에 3M이라고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노란 '포스트 잇'이라는 메모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3M이 만든 것이에요.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1986년인가 신 학철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한국의 3M 지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팀장을 거쳐서 본부장이 된 1995년에 필리핀에 있는 3M 지사의 사장으로

미국 본사로부터 발령장을 받고 필리핀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700명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지사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갈등과 불화 속에서 필리핀 3M 지사가 망해가고 있는 형편에 이 한국인이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4개월에 걸쳐서 700명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게 하고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정말 골이 깊게 나누어져 있던 두 그룹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필리핀 3M 지사가 3년 만에 흑자경영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렇게 흑자경영으로 돌아서게 된 3년째에 본사에서 신 학철 씨를 미국 본사의 이사로 발령을 내고 머지않아 매년 전 세계 30조의 매출을 내고 있는 이 회사의 수석 부회장, 회장 바로 밑의 사람으로 승진을 하고 지금 이분이 이끄는 영역에서 매출 30조 중 20조의 매출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필리핀 지사의 700명이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사장과 내가 심리적으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700명 모두가 각자 사장님과 한 팀이라는 심리적인 조건이 형성될 때 700명이 화합합니다.

왜 가정이 깨어져 나갑니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한 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결속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서는 가족 간의 결속이 결코 끝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게 되고, 부부가 갈등하게 되고, 친척과 형제가 갈등하게 되는 모든 이유는 우리끼리 결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러면 딸의 죽음을 통하여 세 명으로 이루어졌던 가족이 세 팀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각자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되는 콩가루 집안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두 해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처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과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십자가에서 되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채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재정적인 기반에 대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가정에서처럼 나의 삶의 안정을 허락하고 있는 부모, 자녀, 형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때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께서 나의 안정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안심과 평강은 오직 천국으로부터 천국에 계신 아버지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한 팀으로 이루어질 때라야만 우리 가정은 영원한 기반 위에 서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도 주님과 한 팀이 돼서 이미 안정된 마음, 평강한 마음,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업을 잘해서 비로소 잘될 때라야 이제부터 안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심하며 사업장에 가는 겁니다.

한 지붕 세 팀.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족이십니까?
그러면 한 지붕 한 팀, 절대 1인 가족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돼요.
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네 명이 살고 있습니까?
네 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명이면 세 팀, 열 명이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으면 열 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그 팀 속에서 발생하는 안정감을 근거로 오늘 하루도 한번 멋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의 안정감의 기반이 이제 나와 함께 팀을 이루는 주님께, 그리고 그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과 천국 안에 계신 우리의 하늘아버지께

근거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